

호남관문 광주송정역 승강장 승·하차 구간 분리

역 앞 교통체계 개편…상승 정체·혼잡·보행안전 문제 등 해소, 호출택시 승차대 신설

광주시가 만성적인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광주송정역 승강장 일대 교통체계를 개편한다.

광주광역시에는 호남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일대의 상승 정체와 혼잡, 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승강장 교통체계를 개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현장 안내인력 등을 배치해 조기 정착을 유도한 뒤, 상반기 중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광주송정역 일대 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은 승·하차 구간을 기능별로 분리하고, 호출택시 이용 질서를 정비한 것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지하철) 광주송정역 5번 출구 인근에 집중돼 있던 승하차 차량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약 100m 지점인 3번 출구 앞에 '하차 전용구역'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카카오·우버택시·티머니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와 협업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광주송정역'으로 설정할 경우 자동으로 '하차 전용구역'으로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지하철) 광주송정역 2번 출구(KTX 광주송정역 건너편) 앞에 '호출택시 승차대'를 신설했다. 플랫폼 시스템 설정을 통해 지정된 승차

대에서만 택시 호출이 가능하도록 해 일반 대기 택시와 혼선을 줄이고, 승객이 차량을 찾기 위해 차도를 오가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보행 안전도 강화했다. 광주시는 광주송정역 승강장 교통체계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인력 배치와 시민성을 높인 안내표지판을 설치, 운영한다. 이번 개편안은 택시업계 간담회와 수차례 현장 실사를 거쳐 마련됐으며, 교통흐름 개선은 물론 택시 영업환경 개선, 시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순권일 기자

완주군, 올해 친환경 농자재 3만여 톤 공급한다

유기질비료 2만 8,551톤, 토양개량제 1,842톤 공급

완주군이 올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완주군은 최근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 및 지역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농자재 업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비료 공급 물량 확정 및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협의회는 군에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의 원활한 농가 공급을 위해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 지역농협과 협업체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유기질비료 2만 8,551톤, 토양개량제 1,842톤을 공급하

기로 결정하고, 공급업체 등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살포 지역 구획 및 공동살포 대행단 선정 등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유기질비료 포기물량 최소화 및 무분별한 신청 방지 방안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협의했다.

완주군은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살포 대행단에서 살포가 가능한 지역은 무상으로 공동살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농가 부담을 덜고 부족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유기질비료 이모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과 농협이 상호 협조해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기반 비자 발급지원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F-2-R)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으로, 비자 변경 후 1개월 이상 완주군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발급지원금이 1회 지급된다.

모집 인원은 총 17명이다.

이상호 기자

남원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3월부터 본격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지역 시민과 남원시 소재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활동량계(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앱(제움건강)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맞춤형 서비스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6개월간 참여자에게 1:1 맞춤형 건강 상담과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65세 미만의 남원시 거주자 또는 남원시 소재 직

장인 100명이다.

최초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 요인(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질환자와 약물복용자는 제외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0일부터이며, 정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걷기 실천, 영양표시 알기 등 주기적인 건강 미션을 받으며, 달성 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건강관

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문의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 대강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강철)는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5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마을가꾸기사업으로 25명이 참여하며, 면관내 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줍기, 풀베기, 화단 관리 등 깨끗한 대강면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승민 기자

고흥·우주항공청·사천, 지방살리기 나선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9일 우주항공청 대회의실(경남 사천시)에서 고흥군·우주항공청·사천시가 함께하는 설 명절맞이 특산물 판매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체결된 '고흥군-우주항공청-사천시 간 지역상생 자매결연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공공기관·기업 간 상생 자매결연 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고흥군은 우주항공청·사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흥군과 사천시의 특산물 판매가 진행됐다. 고흥군은 유자차, 감·미역, 다시마 세트, 한라봉 등 설 명절 선물용 특산품을 선보였으며, 사천시도 쌀, 토마토, 딸기잼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함께 판매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공동 홍보 및 교차기부 행사도 함께 진행돼 고흥군

과 사천시는 상호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 원을 교차 기부했으며, 우주항공청 역시 현장에서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의미를 확산시켰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특산물 판매를 넘어, 정부의 지방살리기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자매결연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자매결연 협약의 취지를 바탕으로 중앙부처·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상생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은 농경지 침수 예방과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신규지구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구는 대서면 송강 1, 2 방조제와 동일면 봉남방조제다. 군은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74억 원을 확보했다.

우덕현 기자

25개국과 3개 국제기구 참가 확정됐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 200일 앞두고 도민보고회서 행사장·전시관 등 점검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그 가치와 미래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두 달여간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지금까지 25개국, 3개 국제기구 참가가 확정돼 국제행사로서 위상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도와 여주시,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9일 여수 소노암 호텔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도민보고회를 열어, 박람회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도민과 공유했다.

도민보고회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정기명 여주시장과 박수관 민간위원장, 중앙부처, 유관기관·단체, 시군, 도교육청, 섬 전문가,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람회 개최를 20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주행사장과 주요 시설 조성 현황, 전시 콘텐츠 구성, 향후 일정 등을 점검·공유했다.

현재 박람회 행사장은 공정물 50% 수준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조성 완료 예정이다. 주제관(랜드마크)을 포함한 8개 전시관의 내부 콘텐츠는 7월까지 설치를 마친 뒤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박람회 기간 본격 운영된다. 전시는 주제관을 중심으로 섬해양생태관, 섬미라관, 섬문화관, 섬놀이터, 섬식당마켓관, 섬공동관 등으로 구성되며, 섬의 과거·현재·미래를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연결해 전 세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박람회의 상징이 될 랜드마크 조형물 '루미아일랜드(Lumi Isle)'은 빛과 디지털 미디어를 결합해 낮과 밤, 시간대별로 다양한 연출을 선보이며, 미디어아트와 야간 공연 등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체류와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 참가와 관람객 유치도 순조롭다. 현재까지 25개국과 3개 국제기구

의 참가가 확정됐으며, 조직위는 300만 명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지역·전국 방송 연계 홍보, 주요 거점 팝업 홍보, 언론인·인플루언서 초청 팬투어, 해외 매체와 온라인 플랫폼 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박람회의 국제적 의미와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도 이어졌다.

김남희 한국섬진흥원 진흥사업실장은 UN 차원의 '세계 섬의 날' 기념일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조시영 경남도 섬 전문위원은 남해안권 섬·해안 자원을 연계한 해양관광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효연 전남대학교 교수와 윤승철(사)섬즈업 대표는 해양레저관광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지속 가능한 섬관광 모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항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주요 시설의 사후 활용과 섬 방문 연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김영록 지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섬의 가치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세계와 공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섬 박람회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도는 9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자재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민·관·학 업무협약을 하고, 지역 내 생산-소비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나섰다.

우덕현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서 '장수한우' 판매 행사

백화점 고객에 장수한우 브랜드 홍보 및 판로 확대



장수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장수한우' 선물세트 판매행사를 개최하며 '장수한우' 브랜드 홍보와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B1 율가매장 및 6층 장수한우명품관)에서 진행되며 장수한우 구이류와 정육류 등 다양한 상품을 백화점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판매 품목은 꽃등심·치마살·부채살·엄진살 등 구이류 4종과 양지·국거리·불고기 등 정육류 3종으로 구성됐으며 장수한우 고품세트와 함께 장수사과, 오미자청 등 장수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특히 고객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가 높은 최상급 브랜드육을 활용한 특과 상품을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강화했다.

장수한우는 청정 고원의 미네랄이 풍부한 음용수와 큰 일교차 환경에서 사육돼 육색이 선명하고 육질이 단단해

맛과 품질이 뛰어난 한우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는 장수한우의 강점을 백화점 주요 고객층에 집중적으로 알려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또한 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저탄소한우)로 지정됨에

따라 저메탄 종모우 개발과 스마트 ICT 기술을 접목한 저탄소 한우 생산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품질 경쟁력과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친환경 축산 모델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서주 기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및 무료 셔틀버스 운행

고창군이 설명절을 앞두고 5일간(10~14일) 고창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창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일 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환급은 고창전통시장 동문 주차장 고객편의시설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아울러 기존 장남에만 운영하던 무료 셔틀버스도 설 연휴전 매일 운행된다.

군민과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과 외지 방문객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고창사랑상품권 20% 특별할인 혜택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함께 적용된다.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이 상품권 할인 구매와 환급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무료 셔틀버스 매일 운행에 더해,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체감 혜택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

장이 지역경제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명절 장보기 장소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고창군이 설 연휴(14~18일)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고창종합병원은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고창군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진료소는 연휴 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한다.

이영임 기자